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된 한해

협의회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멀티미디어협의회와 EC협의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97년에는 두 협의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협의회의 조직 개편과 함께 의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멀티미디어협의회는 SGML분과위원회를 통해 개방형 시스템에 적합한 세계적 문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SGML의 국내 보급 확산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SGML/XML에 대한 표준을 업계에 소개함은 물론 총무처와 함께 정부의 발간 자료의 SGML화를 위한 시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DAVIC분과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전반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DAVIC World의 일원으로서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가 모여, DAVIC 표준의 업계 보급을 위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고, DAVIC 표준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가전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정보가전 기기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회원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호 토의와 함께 IDC의 "Information Appliance, the next wave of Computing"이라는 정보자료에 대해 희망업체들의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정보자료를 확보, 집중적인 검토를 추진하였다.

EC협의회는 연초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의 주된 사업방향을 Internet Based EC로 초점을 모으고 관련 정보의 확보 및 제공, 유관업계 연대 방안의 모색 등 업계 공동의 컨소시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EC협의회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 조사"를 실시, 국내의 전자상거래 규모와 전자상거래 시행을 위한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해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전망과 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달 EDI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산원이 설립한 정부 EDI/EC지원센터와 민간 VAN간의 연계방안 수립 및 정부 EDI/EC지원센터의 장단기적 역할 정비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VAN간 상호접속·연계방안 연구"를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수탁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결과 Internet Cyber Shopping Mall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EC용 Solution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EC협의회에 새로이 합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상의 애로사항 타개와 이용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협의하여 업계가 공동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었다.

'97년에는 협의회 활동결과 상기한 바와 같은 사업 추진 성과들이 이루어졌으나, 반면 연초의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채 한 해를 마감하게 된 사업들도 있다. 그중에 하나로 콘텐츠 관련 사업계획을 거의 추진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하나의 반성은 협의회 회원들간의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고, 자율적 협의와 참여의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인데 협의회 참여자간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못하고 협회 사무국이 대부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의회가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98년에는 금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들을 거울삼아 민간 자율적 협의, 발전기구로서 협의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갈 생각이다. <박석규 진흥부장>